

# 3·1정신으로 한반도 평화 기원

### 장수 죽림정사 3·1절 97주년 기념법회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대표로 참여한 백용성 조사의 탄생지인 전북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륜)에서 기미년 3·1만세 운동 97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3월 1일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봉행된 기념법회는 조실 도문 스님, 주지 법륜 스님, 정도회지도법사 유수 스님, 신봉수 용성조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민족대표 유가족, 정도회 회원 등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선열들의 3·1만세 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법회는 △반야심경 △국민의례 △애국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민족대표 33인 헌화 △3·1절 경과보고 △삼일절 노래 및 온겨레의 노래 제창 △삼일절 △축사 △범어 △신독립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일제에 항거하면서 조선이 독립된 나라임과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선조들의 애국정신과 3·1만세운동을 주도한 백용성 조사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

이 자리에서 도문 스님은 범어를 통해

민족대표 현화·독립선언문 낭독  
용성조사 탄생지에 올린 독립정신  
민족 독립 힘센 선조 정신 되새겨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 만들기”

“기미년 3·1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은 불교의 우주관인 33천을 상징한다”며 “용성 조사는 3·1만세운동의 불교계 대표로 참여해 막후 역할을 하고, 대한제국의 부흥이 아닌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수립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기념사에서 “3·1만세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며 “3·1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독립운동이었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전 세계로 독립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통일은 커녕 상호 협



백용성 스님의 탄생지 전북 장수 죽림정사는 3월 1일 3·1만세운동 97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력하는 평화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슬픈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오호려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한 일본과 군사힘을 하는 등 우리 운명이 남의 나라 손에 달린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법륜 스님은 “3·1만세운동을 이끌고 그것을 위해 활동한 백용성 조사의 유훈을 계승하는 불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 국민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용성 스님은 한국 현대불교 기반을 닦은 선지식으로 종로 한복판에 대각사를 창건하는 등 불교를 도심으로 내려오게 해 생활불교, 바른 불교의 기풍을 마련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계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우리 민족을 독립케 하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라며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주 심향사 회주 성오 스님이 안전운전 기원을 담은 축수의식을 하고 있다.

## 미륵사, 로드킬 희생동물 천도재

### 차량 안전운행 기원 축수의식도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로드킬’로 희생된 야생동물을 위한 천도재가 열렸다. 무등산 미륵사(주지 해법)는 2월 27일 경내에서 한 해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로드킬 희생 동물을 위한 천도재와 차량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을 봉행했다.

올해 2회째 열린 이날 행사는 성오 스님(나주 심향사 회주), 연광 스님(광주 불교연합회장), 이법식 광주불교연합신도회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해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동물들은

인간들과 달리 자신들이 다니는 길만 다닌다. 도로개발로 동물들의 길이 차단되지만 동물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다니면서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천도재에서는 운전자들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법회 의식도 이어졌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는 한국도로공사에 방화포 주판으로 도로에서 차에 치어 죽은 동물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전시회도 열렸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행사 참가 차량들의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축원과 축수의식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사 사회복지법인 '송광'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꿈앤카페 완주떡메마을'을 열었다.

## 송광사복지법인, '완주떡메마을' 개소

### 장애인이 고용 창출 확대 이바지

장애인이 직접 생산하고 운영하는 '꿈앤카페 완주떡메마을'이 문을 열었다.

완주 송광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송광' (대표이사 법진)은 2월 25일 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에서 '꿈앤카페 완주떡메마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카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완주떡메마을'에서 생산된 전통떡류와 즉석조리식품, 국산 차, 커피 등 각종 음료를 판매한다. 특히 모든 식재료는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사용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대전 죽

림정사 주지 광진 스님, 송광사 총무 상견 스님,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진 스님은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민관합동 작품인 카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인력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 2명과 시간제근로자 등 총 4명이며, 향후 3년 이내 6명의 장애인을 확대 채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꿈앤카페는 국비와 군비 등 총 7000만원이 투입돼 30㎡ 규모로 지어졌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완주군이 선정된 사업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태안 보타락가사 해수관음보살상 점안

### 일면 스님 초청 법회, 2천여 명 참석

충남 태안 보타락가사(회주 법진)는 3월 1일 해수관세음보살상 낙성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2천여 명이 모인 이날 행사는 헌화 및 헌공, 영산제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사로 초청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前동국대이사장)은 법문을 통해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사업이 잘 안되는 등 불행 현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을 적극 당부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기도정진하다가 배가 고파서 찾아가 끊어 지더라도 밥을 구하는 마음이 안 들도록 일념으로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도 “멀리 이곳 태안반도까지 관세음보살상을 천천히 오신 불자들에게 점안한 공덕의 가피가 대대손손 이어지시길 바란다”며 “해수관세음지인 보타락가사는



해수관세음지인 태안 보타락가사는 3월 1일 경내에서 해수관세음보살상 낙성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관음기도 정진 소리가 1년 내내 끊어질 않는 성지인 만큼 오늘 행사에 참여한 신심오락 각 가정에 돌아가서도 꾸준히 기도정진에 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타락가사는 회주 법진 스님이 관세음지 조성불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매일 정오(낮 12시)에 웅장한 찬불음악소리와 함께 대웅전 지붕 위에서 잠깐 관세음보살상이 현현 하

신다는 점이다. 보타락가사를 찾는 불자들을 위해 회주 법진 스님이 기획한 일종의 깜짝 이벤트다. 이번에 조성된 해수관세음보살상은 바닷가쪽 사찰 마당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이 절서 빼놓을 수 없는 전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와불전이다. 그 안에는 금불로 만든 길이 10m의 ‘열반와불상’이 모셔져 있다.

태안 보타락가사=김주원 기자 사진=노덕현 기자

## 이리불교대학 25기 졸업식

### 졸업생 14명 배출

익산지역 불교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관음사 주지)이 25기 졸업법회를 봉행했다.

2월 28일 익산 관음사 3층 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은 김진수 부학장, 송동기 능인회장, 김지구 마한거사림회장, 가릉빈가 합창단, 졸업생 가족 및 동문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강현숙 불자 등 14명의 불자들이 1년간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과 ‘부동’ 품계를 수지했다. 특히 학업성적이 우수한 불자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김영옥 불자가 포교원장상, 원귀순·정정석 불자가 17교구본사주지상, 박노준·박영주 불자가 학장상을 수상했다.

덕림 스님은 “지난 1년간 불교대학을 통해 배우고 익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나가 펼칠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지혜의 눈을 뜨고 원력을 발휘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탁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 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mm 15만원  
[중] 110 × 80 × 160 mm 20만원  
[대] 140 × 95 × 200 mm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삼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 엄 괘 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 (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삼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